

일본 선교소식 (요코하마)

2024.9 정지문 · 김은옥선교사 기도편지

고마우신 수산교회 성도님들께

그동안도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늘 기도가운데 기억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9월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무더위가운데 많은 인내가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지요!

단기선교팀과의 협력

지난 7월말에는 기도와 금식가운데 잘 준비된 단기선교팀이 와서 선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단기선교팀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 처음 참석하여 난생처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한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기모노를 입고 예배에 오신 90세의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단기선교팀의 헌신을 통해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해주시고 복음의 전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자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길갈에서 벳엘까지, 벳엘에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르단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그 시대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사역의 계승자)을 받게 되지요. **제자도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스승을 따라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시대에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됨을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위탁하고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라감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골 1:24,25).

해산의 기도

삿포로에서 1기 사역 중에 어느 날 교회에 나오는 의대생의 집을 방문하여 내과 의사인 아버님과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여 그 날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주님이 그 분들을 마음에 품게 하셔서 그 분들이 은혜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40일간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40일의 기도후에 주님께서 아들이 다니던 유치원의 어머니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꽃을 주제로 하는 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호시노 토모히로상이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매일 보았던 하늘이 바뀌었다. 눈물을 흘리며 친구가 기도

해주고 있었던 때 조심 조심 성경을 열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바로 그 때 하늘이 바뀌었다. 하늘이 저를 응시하게 되었다.” 하늘 아버지는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해산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그리스도안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심을 봅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며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또 다른 40일간 주님의 집에서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감사

1. 생애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을 인도하심
2. 매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심



기도제목

1. 9월 20일 가나가와현 선교사협의회 주최로 한국의 IBIG BAND을 초대하여 여는 콘서트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2. 매주 금요일의 Kids English camp에 새로운 가정들이 연결되어 영적자유를 경험하는 분위기가 되고 가족전도의 큰 문이 열리도록
3. 마음이 열린 요시코상과 그리고 아카바네상이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도록
4.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린라인교회가 지역의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